

개혁주의신학 관점에서 본 영계(靈溪) 길선주(吉善宙) 목사의 '자유의회론'

안수강

(백석대학교, 외래교수, 교회사)

- I. 들어가는 말
- II. 범죄 후 인간의 죄 문제 및 종교심(宗教心)
- III. 구원과 자유의지의 상관성
- IV. 선택, 심판과 자유의지의 상관성
- V. 나가는 말

[초록]

본고의 연구 목적은 영계(靈溪) 길선주(吉善宙) 목사의 자유의지론을 개혁주의신학 관점에서 분석하려는 데 있다. 본 연구자는 그의 자유의지론에 나타난 핵심적인 사상들과 논점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숙고했다. 첫째, 거시적인 틀에서 길선주의 신학체계에 나타난 행위언약, 선천적 원죄와 자범죄, 부패와 타락, 자유의지, 모든 인간에게 내재된 종교심(宗教心) 등에 관하여 분석했다. 둘째, 길선주의 '구원과 자유의지의 상관성 논지'에 기초하여 칭의론에 관한 논증, 자유의지와 칭의의 관계성, 창세기 15장 6절 진술에 관한 이해와 해석, 신인협동설 등을 중심으로 고찰했다. 셋째, 길선주의 '선택과 자유의지의 상관성 논지'에 기초하여 예지예정, 선행적(先行的) 은총과 이 은총에 대한 인간 편의 응답 등에 초점을 맞추어 조망했다. 넷째, 길선주의 '심판과 자유의지의 상관성 논지'에 기초하여 하나님의 전능하신 속성과 심판 유형의 다양성, 심판의 정당성, 인간이 감당해야 할 모든 죄책(罪責) 등에 주안점을 두어 살폈다. 길선주의 신학사상에 비추어 추후 그와 관련된 담론을 외연하여 이 주제 외에도 세대주의적 전천년설, 시한부 종말론, 삼계론(새 예루살렘: 무궁안식세계; 지옥), 조상립보, 그리스도의 다섯 차례 강림, 그리스도의 다섯 차례 부활, 성경의 우화적 해석, 그리스도 재림의 내증과 외증 등 다양한 영역으로 확장되기를 바란다.

키워드: 길선주, 자유의지, 개혁주의 신학, 구원, 심판, 죄

논문투고일 2024.01.26. / 심사완료일 2024.02.23. / 게재확정일 2024.03.05.

1. 들어가는 말

이 연구는 영계(靈溪) 길선주(吉善宙) 목사(1869-1935)의 설교집과 말세학 저서 등 원자료를 중심으로 개혁신학의 신학 관점에서 그의 자유지론 관점을 분석하려는 데 목적을 둔다. 그와 관련된 연구는 부흥회, 목회사역, 설교론, 성화와 영성, 민족운동, 말세론(종말론) 등 다양한 주제의 논문들이 발표되었지만 지금까지 자유지론에 대해 고찰한 사례는 없다. 길선주의 사역과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초기 한국기독교의 정초를 다진 사역자로, 또한 보수신앙을 수호하고 전수한 목회자로 회자된다. 특별히 그가 일군 학술적 성과로는 대체로 종말사상(말세사상)에 주목하는 추세이다. 본고에서는 미시적(微視的) 연구 주제로서 그의 자유지론을 고찰할 것이며 칼빈(John Calvin) 사상을 따르는 개혁신학의 신학 관점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규명하고자 한다. 길선주가 평양신학교에서 대체로 매킨토신학교와 프린스턴신학교 출신 선교사들로부터 장로교 보수신학을 수학했다는 점¹에서 당연히 자유지지를 부정했을 것이라고 유추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는 단순히 판단할 문제가 아니며 그가 남긴 원전들을 통해 분석해야 한다. 그는 자유지지를 논증할 때 일체 다른 신학자들 혹은 선교사들의 글을 인용하거나 참고하지 않았으며 스스로 해당 성경 구절들을 발췌하여 독자적으로 해석함으로써 이를 성경적 근거로 제시했다.² 본고에서 논하는 길선주의 자유지론은 그의 신학사상과 관련하여 후속 연구 수행에 유의한 논거가 될 수 있으리라 본다.

한국에 기독교가 전래된 때로부터 해방을 맞기까지 길선주는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등 개신교의 교파와 교단의 경계를 넘어서서 초기 한국기독교 반세기의 역사를 선도한 인물로 평가받는다. 그를 아버지처럼 존경하고 흠모했던 김인서(金麟瑞)는 그의 신학에 대해 “선생의 신학은 영미(英米)나 어느 외국의 대가(大家)에게서 배운 것이 아니며 (중략) 유(儒)에 취(就)하여 문(文)과 인(仁)을 배우고 불(佛)에 취하여 선(禪)을 배우고 선(仙)에 입하여 현빈(玄牝)을 수(修)한

1 안수강, 『길선주 목사의 말세론 연구』 (서울: 예영커뮤니케이션, 2008), 155.

2 Cf. 김인서, “영계 선생의 말세학,” 『신앙생활』 제4권 7호 (1935. 7), 13.

선생의 신학에는 아마도 동방적인 색소가 농후한 바 있다.”라고 하여 ‘선생 독특한 신학’이자 ‘조선 독특한 신학’이라고 고평했다.³ 그는 길선주의 성경해석에 대해서는 “독창이요 예언이었으니 칼빈 왈(曰), 고-데 왈, 메이여 왈 등이 필요하지 않았다.”라고 했으며, 특히 재림론에 대해서는 “‘예수 왈’, ‘요한이 보니’ 외에 모왈(某曰) 모왈이 필요하지 않았다”라고 확인했다.⁴ 길선주는 1907년 1월에 평양 대부흥운동을 주도했고, 같은 해 9월 한국장로교 최초로 목사 안수를 받은 7인 중 한 분이며, 선교사 리(Graham Lee)를 계승하여 평양 장대현교회를 섬긴 걸출한 목회자였다. 1919년 삼일독립운동 당시에는 민족대표 33인 명부에 이름을 올렸고 2년 어간 영어(囹圄)의 고초를 겪었으며 애국애족의 고귀한 행적을 남겼다. 또한 왜정치하에서 민족의 고통을 감내하며 말세사상을 강론하여 그리스도인들에게 새 하늘과 새 땅의 종말신앙을 일깨워준 선각자였다. 그의 사적 가운데 인생 후반기인 1920년대 중반부터는 순회부흥운동을 통해 말세론을 강론하여 식민치하 핍박기의 신자들에게 재림의 소망을 심어주었다. 1935년 11월 26일 향년 66세를 일기로 소천했을 때 「기독신보」에서는 한국장로회의 원로이자 한국교회의 거성이요 교인들의 존경을 받는 분이라고 칭송했으며,⁵ 성경교의 이명직은 그를 한국기독교를 설립한 영계(靈界)의 파수꾼으로, 교계와 교육계에 인재들을 양성하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한 사표로 추앙했다.⁶ 장로교의 대표적 학자였던 박형룡 박사는 그의 숭고한 사역을 폴리갑(Polycarp), 크리소스툼(John Chrysostom), 어거스틴(Augustine) 등 교부들, 종교개혁자 칼빈(John Calvin), 감리교 설립자 웨슬리(John Wesley) 등의 공적에 견주었다.⁷ 당시 동아일보사 사장 송진우는 길선주가 성역에 임하여 60개 처소에 이르는 교회들을 설립한 일과 만 칠천 회에 걸쳐 강도한 방대한 분량의 설교를 회고하면서 “다만 교회 내부의 일로만 볼 것이 아니고 사회 민중 교도에 얼마나 크게 공헌하셨는가를 알 수 있는 것”⁸이라고 감탄하여 목회

3 김인서, “영계 선생 소전(하),” 「신학지남」 14권 3호 (1932. 5), 35; 김인서, “영계 선생의 말세학,” 13.

4 길선주, “영계 선생의 말세학,” 13.

5 “사경회 중에 돌연 졸도 길선주 목사 장서(長逝),” 「기독신보」, 1935년 12월 4일, 제1면.

6 이명직, “영계 선생 길선주 목사 추모함,” 「활천」 제158호 (1936. 1), 3-4.

7 박형룡, “사도 생애의 재 연출,” 「신앙생활」 제5권 1호 (1936. 1), 22.

영역뿐만 아니라 일반사회에 미친 영향력에도 주목했다. 이렇듯 길선주는 해방 전 한국기독교의 초석을 놓은 선구자로, 1907년 대부흥운동의 주역이자 교회를 섬긴 목회자로, 애국애족을 실천한 민족운동가로, 사도들의 생애를 재현한 선각자로, 나아가 기독교계뿐만 아니라 일반사회를 계몽한 민족의 지도자로 존경받는다.

2000년대 들어 부흥회, 목회사역, 설교론, 성화와 영성, 민족운동, 말세론(종말론) 등 길선주와 관련된 주요 저작들로서 박용규의 『평양대부흥운동』(2000), 서정민의 “한국교회 초기 대 부흥운동에서 길선주의 역할”(2007), 근광현의 “길선주의 성령운동”(2011), 이현웅의 “길선주 목사의 설교론과 설교에 관한 분석 연구”(2008), 안수강의 “길선주의 성화론 연구”(2014), 옥성득의 “평양 대부흥운동과 길선주 영성의 도교적 영향”(2006), 김상일의 “길선주와 이용도의 영성과 동학의 영성 비교”(2008), 나동광의 “길선주의 생애와 민족운동”(2001), 백종구의 “영계 길선주 목사(1869-1935)의 민족주의”(2006) 등이 출판되었다.⁹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말세론(종말론) 분야에서는 문백란의 “길선주의 종말론 연구: 그의[말세학]을 중심으로”(2000), 허호익의 “길선주 목사의 ‘말세학’의 한국신학적 특징”(2007), 안수강의 “길선주의 시간관에 나타난 말세론(末世論) 소고: 그의 설교집을 중심으로”(2007)와 “길선주의 재림론에 나타난 총괄갱신(總括更新) 관점 분석 그의 『말세학(末世學)』을 중심으로”(2019), 김유준의 “1920-30년대 길선주의 종말론적 부흥운동-종말론적 내연과 신사참배 저항의 외연을 중심으로-”(2016) 등이 발표되었다.¹⁰

8 송진우, “조사(吊辭),” 『신앙생활』 제5권 1호 (1936. 1), 39.

9 박용규, 『평양대부흥운동』 (서울: 생명의 말씀사, 2000), 1-702; 서정민, “한국교회 초기 대 부흥 운동에서 길선주의 역할,” 『한국교회사학회지』 제21집 (2007), 153-178; 근광현, “길선주의 성령 운동,” 『복음과 실천』 제47권 1호 (2011), 81-107; 이현웅, “길선주 목사의 설교론과 설교에 관한 분석 연구,” 『한국기독교신학논총』 제55집 (2008), 271-298; 안수강, “길선주의 성화론 연구,” 『한국교회사학회지』 제39집 (2014), 139-180; 옥성득, “평양 대부흥운동과 길선주 영성의 도교적 영향,”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제25집 (2006), 57-95; 김상일, “길선주와 이용도의 영성과 동학의 영성 비교,” 『신종교연구』 제18집 (2008), 11-36; 나동광, “길선주의 생애와 민족운동,” 『문화전통논집』 제9집 (2001), 117-129; 백종구, “영계 길선주 목사(1869-1935)의 민족주의,” 『선교신학』 제13집 (2006), 157-176.

10 문백란, “길선주의 종말론 연구: 그의[말세학]을 중심으로,” 『교회와 역사』 제4집 (2000), 62-79; 허호익, “길선주 목사의 ‘말세학’의 한국신학적 특징,” 『신학과 문화』 제16집 (2007),

이상, 선행연구를 살펴본 바로는 지금까지 길선주의 신학사상을 자유의지론 관점에서 단일주제로 설정하여 고찰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 본 논문에서는 그의 자유의지론 논증에 초점을 맞추어 '범죄 후 인간의 죄 문제 및 종교심(宗敎心)', '구원과 자유의지의 상관성', '선택과 자유의지의 상관성', '심판과 자유의지의 상관성' 등을 중심 논제로 설정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길선주의 원전 및 동시대 자료들에 기술된 고어체는 원문의 본래적 의미를 고려하여 현대어체로 교정했고, 단어의 표의적(表意的) 의미를 밝혀야 할 경우에는 원문의 한자를 병기했다.

II. 범죄 후 인간의 죄 문제 및 종교심(宗敎心)

본 장에서는 인간의 타락, 선택, 자유의지를 주요 정점들로 설정하여 상관성을 논할 것이며 '원죄와 자범죄(本罪) 문제'와 '내세를 지향하는 종교심'에 주안점을 두어 살펴보고자 한다. 그가 설교문 "교회의 사종인(四種人)"에서 분류한 원죄와 자범죄, 시간대에 따른 자범죄 구분, 그리고 "단심만능(丹心萬能)"에서 논한 인간 내면에 깊이 내재한 종교심은 모든 인간이 행위언약의 파기로 인해 원죄에 오염되었지만 하나님의 형상이 잔존해있기 때문에 여전히 내세를 열망하는 존재라는 실존적 인간상을 제시해주는 중요한 단서가 된다.

1. 원죄와 자범죄(本罪) 문제

길선주는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을 창조하실 때 자유의 능(能)과 자유의 권(權)을 주셨다."¹¹라는 입장을 취하여 아담 타락 이전의 인간상에 대해서는 온전하게

297-323; 안수강, "길선주의 시간관에 나타난 말세론(末世論) 소고: 그의 설교집을 중심으로," 『역사신학논총』 제14집 (2007), 209-233; 안수강, "길선주의 재림론에 나타난 총괄갱신(總括更新) 관점 분석 그의 『말세학(末世學)』을 중심으로," 『역사신학논총』 제35집 (2019), 149-177; 김유준, "1920-30년대 길선주의 종말론적 부흥운동-종말론적 내연과 신사참배 저항의 외연을 중심으로-," 『대학과 선교』 제31집 (2016), 165-198.

11 길선주, "말세학(13)," 『신앙생활』 제5권 9호 (1936. 10), 13.

자유의지를 지닌 무흠한 존재로 이해했다. 또한 세대구분에 있어서도 “아담이 창조를 받을 때부터 무궁안식시대까지 일곱 시대로 분(分)할 수 있으나 아담이 창조를 받을 때부터 죄를 범하기 전까지는 무죄시대요”¹²라고 진술하여 무죄시대는 이마고 데이(imago Dei) 즉 하나님의 형상을 갖춘 순결한 인간상을 갖춘 시대였다고 설명했다. 참고로, 세대 구분과 관련하여 유의할 점으로서 길선주의 신학사상은 하나님의 절대주권(sovereignty of God)을 인정하는 언약신학에 입각해있고, 율법시대와 은혜시대 그리고 이스라엘과 교회를 엄격하게 구분하는 세대주의의 사상체계와는 엄연히 다르다는 점에서 그를 전형적인 세대주의자들과 동일시해서는 안 된다.¹³ 그는 일곱 시대를 무죄시대, 양심시대, 인권시대, 허락시대, 율법시대, 은혜시대, 안식시대 등¹⁴으로 대별하여 큰 틀에서 세대주의와 유사한 입장을 취했으나 각 시대를 실패로 규정하지 않았고 철저하게 언약신학에 입각하여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알파와 오메가의 직선사관(直線史觀)을 적용했다.¹⁵

주지하듯이 시조 아담이 하나님과 체결한 행위언약(창 2:17,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을 파기하고 원죄를 범함으로써 모든 인간은 속성이 오염되어 타락했고 아담이 범한 선천적인 원죄 뿐 아니라 원죄와 인과관계로 결부된 자범죄가 연이어 개입되었다. 길선주는 설교문 “교회의 사종인(四種人)”에서 지상의 가견적(可見的) 교회에는 대체로 4종의 인간 부류가 존재한다고 했다. 그에 의하면 이 4종의 부류는 비록 죄 사함은 받았으나 아직 신앙이 성숙하지 못한 유아기의 초신자 그룹, 심판주를 아는 원로(元老) 그룹, 악의 세력과 성전(聖戰)을 치르는 왕성한 청년 그룹, 천부(天父)를 아는 소아(小兒) 그룹 등으로 분류된다.

12 길선주, “말세학(예수 재림론),” 『신앙생활』 제4권 8호 (1935. 8.9), 10.

13 길선주를 전형적인 세대주의론자들과 동일시해서는 안 된다는 논점에 대해서는 다음 문헌을 참고할 것. Cf. 안수강, 『길선주 목사의 말세론 연구』, 125. 후크마는 세대주의자들에게 인간이 각기 다른 세대에서 새로운 방법으로 시험을 받아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를 반문하면서 세대주의자들이 성경적 계시의 근본적인 통일성을 정당하게 다루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Anthony A. Hoekema, *The Bible and the Future* (Grand Rapids, Michigan: W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89), 195.

14 길선주, “말세학(예수 재림론),” 10.

15 이 논점에 대해서는 다음 문헌을 참고할 것. 안수강, 『길선주 목사의 말세론 연구』, 124-128.

요일 2:12-14 인(引), 예로부터 지금까지 교회에 차(此) 4종인(四種人)은 없을 수 없다. -, 초신자 12절- 1. 죄사함을 얻은 자 -, 원죄 二, 본죄 (1) 전죄(前罪) (2) 금죄(今罪) (3) 내죄(來罪) 二, 원로(元老, 13절) 1. 심판주를 아는 자. -, 전재(前在)하심을 二, 금재(今在)하심을 三, 영재(永在)하심을 四, 전성(全聖)의 성품 五, 전능의 권능으로 三, 청년(13절) 1. 흥악을 이김. -, 마귀 二, 정욕 三, 세상 (1) 허영 (2) 명예 (3) 재리 四, 소아(小兒, 13절) 1. 천부를 아는 자. -, 인애하신 아버지로 二, 친근하신 아버지로 三, 무소부재하신 아버지로 四, 무소부지(無所不知)하신 아버지로 五, 무소불능(無所不能)하신 아버지로¹⁶

길선주는 원죄와 자범죄의 문제를 교회의 4종인에 나열된 부류들 중 제1그룹 유형의 죄사함을 받은 초신자 그룹에 초점을 두어 다루었다. 왜냐하면 이들은 신앙에 갓 입문하여 죄를 용서받은 유아기적 단계의 연약한 신자들이며 성숙한 신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죄에 노출되기 쉬운 부류라고 진단했기 때문이다. 그는 죄를 ‘원죄’와 ‘자범죄’(본죄)로 나누고 자범죄는 다시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시간대를 적용하여 ‘전죄(前罪, 과거의 죄)’, ‘금죄(今罪, 현재의 죄)’, ‘내죄’(來罪, 미래의 죄) 등으로 세분함으로써 전통적 개혁주의 죄관을 답습했다.¹⁷ 이 문제와 관련하여 칼빈의 논리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인류 시조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지만 자유의지를 오용함으로써 하나님과 자신 사이에 체결된 신성한 행위언약을 파기했다. 아담이 모든 후손을 포함하여 인류의 대표자로서 하나님과 행위언약을 체결했다는 점에서 대표의 원리에 따라 원죄는 아담 개인에게만 국한되지 않고 모든 인간에게 고스란히 생득적인 죄로 적용된다. 그 결과 아담 자신을 포함하여 보통 생육법에 의해 출생한 모든 후손이 예외 없이 원죄의 굴레에 속박되었고 속성이 부패하여 일생 자범죄까지 범하는 불행한 존재들로 전락했다.”¹⁸ 칼빈은 인간 본성의 항구적 부패를 지적하

16 길선주, 『강대보감』 (평양: 동명서관, 1926), 38-40. 설교제목: “교회의 사종인(四種人)”.

17 Cf. 박형룡, 『교의신학: 인죄론』 (서울: 한국기독교교육연구원, 1981), 259-280; Louis Berkhof, *Systematic Theology* (Grand Rapids, Michigan: W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81), 244-254.

는 대목에서 악한 의지를 선한 의지로 전환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뿐이며 결코 인간의 의지가 하나님의 은혜에 앞설 수 없다고 했다.¹⁹ 어거스틴에 의하면 자유의지는 독립적으로 작동하는 요소의 일부가 아니며, 하나님의 형상에 연계되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속성을 갖는다. 따라서 인간에게 부여된 형상이 온전하게 유지되지 못하고 훼손될 경우 자유의지 역시 마찬가지로 부패 상태로 치달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²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The Westminster Confession of Faith*)에서는 아담 시조가 하나님과 체결한 행위언약을 파기함으로써 “모든 인간은 구원에 수반되는, 영적인 어떤 선을 행사할 수 있는 모든 의욕을 ‘전적으로’(wholly) 상실했으며, 행위로서는 구원에 이를 수 없는 무능한 존재로 전락했다.”²¹라고 명시했다.

그런데 길선주의 자유지론 관점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왜냐하면 그 역시 행위언약 파기 이후에 등장하는 전형적인 표현들로서 인간 속성의 타락, 원죄, 자범죄, 하나님의 은혜, 구원, 주권 등 동일한 용어들을 구사하지만 자유의지 문제에 관련한 개혁주의신학과는 다른 입장을 취하기 때문이다. 길선주는 하나님 측에서 ‘모든 인간’을 대상으로 베푸시는 ‘선행적(先行的) 은혜’와 이에 대한 ‘인간 편에서의 응답’이라는 양자 간 신인협동(syncretism) 작업이 개입된 칭의사상을 주장한다. 이 논점에 대해서는 본 논문 제3장 ‘구원과 자유의지의 상관성’에서 별도로 논할 것이다.

2. 내세를 지향하는 종교심

18 안수강, “버지스(Anthony Burgess)의 『율법변증』(*VINDICIAE LEGIS*)에 나타난 반율법주의 논쟁 분석: 삼중구조(‘율법-은혜언약’, ‘율법-복음’, ‘율법-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영산신학저널』 제66집 (2023), 211-212. 이에 관한 칼빈과 벌코프의 논증에 대해서는 다음 문헌을 참고할 것. Cf. John Calvi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trans. Ford L. Battles, ed. John T. McNeill (Philadelphia, PA: The Westminster Press, 1960), II. 1. 1-11; Louis Berkhof, *Systematic Theology*, 244.

19 John Calvi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II. 3. 6(297면); 7(298-299면).

20 조운호, “아담의 세 가지 직분과 창조론과의 관계,” 『갱신과 부흥』 제24호 (2019), 239.

21 Gerald I. Williamson, *The Westminster Confession of Faith* (Phillipsburg, NJ: P&R Publishing, 2004), 111.

행위언약 파기 후 인간은 완전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하여 외부의 절대자인 신(神)을 탐구하는 종교심마저 상실했는가? 칼빈은 이 문제와 관련하여 모든 인간은 내면에 선형적인 종교심(宗教心)을 갖는다고 주장했으며 이를 '종교의 씨앗'(the seed of religion)이라는 관점에서 논했다. 그는 인간이 행위언약을 파기하여 타락한 후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이 흔적(자취)으로 잔존한다고 주장했다.²² 그는 이 논점을 단초로 모든 인간의 태생적인 종교심을 주장했으며 이 종교심이 원초적 지식이자 종교의 씨앗으로 개개인의 마음속에 새겨져 있다고 이해했다.²³ 개혁주의 변증학자 반틸(Cornelius Van Til)은 일반은총의 범주에 속한 모든 인간은 '어찌할 수 없이'(피할 수 없이, unavoidably) 신을 인지하며 이 지식은 생득적 속성을 갖는다고 했다.²⁴ 참고로, 한국 기독교 전래 초기에 한국 고대문학서들에 심취했던 미국복장로회 파송 선교사 게일(James S. Gale)은 동양인들의 타고난 종교심에 깊은 관심을 가졌다. 그는 일상의 삶에서 '하늘'을 열망한 조선인들의 시가를 탐구하여 "하늘나라에 대한 생각"²⁵을 묵상했으며, 하나님을 모르는 대륙의 중국인들에게도 태생적으로 천국을 바라는 심성이 내재되어 있다고 했다.²⁶

길선주 역시 모든 인간에게는 예외 없이 선천적으로 내세를 열망하는 종교심이 내재해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신자와 불신자를 막론하고 모든 인간의 마음은 현상세계인 지상의 영역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불가시적 세계인 천국과 지옥을 사유(思惟)할 정도로 매우 광대하다고 했다. 그는 모든 인간에게는 누구나 내세를 갈망하는 종교성이 있다고 했으며 그 마음은 우주도 용납하지 못할 정도로 넓기에 본성적으로 사후의 처소인 천국과 지옥에까지 다다른다고 설파했다. 그는 도교(道敎)의 경전 옥경(玉經)에서 논하는 참된 마음, 서유기(西遊記)에 기술된 천궁(天宮), 이데아의 영역으로서의 대 성계(大星界), 불교의 지부(地府),

22 John Calvi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II. 2. 12(270-271면).

23 John Calvi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1)*, I. 3. 1(43-44면); I. 4. 1(47면).

24 Cornelius Van Til, *The Defence of the Faith* (Phillipsburg, New Jersey: Presbyterian and Reformed Publishing Company, 1967), 151-152.

25 James S. Gale, "하늘나라에 대한 생각," 유영식 편, 『착한 목자 게일의 삶과 선교(2)』 (서울: 도서출판 진흥, 2013), 475.

26 James S. Gale, "천국," 유영식 편, 『착한 목자 게일의 삶과 선교(2)』, 435.

저승) 등을 소개하여 내세를 동경하는 인간 내면의 심계(心界)를 음미했다.

잠 4:23-; 마 5:1-12 인(리): 옥경(玉經)[道敎의 仙道書-연구자 주]에 이르기를 不貴黃金貴赤心[황금이 아닌, 참 마음이 고귀함-연구자 주]이라 하였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은 신이시니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라 하였고 (종략) -, 마음은 광대 1. 위로 천당과 별 세계를 만나니 -, 서유기(西遊記)에 孫行者日上天宮作亂[손오공이 이르기를 천궁의 작난-연구자 주]이란 설은 곧 심계(心界)를 논해(論解)[논하여 풀어냄-연구자 주]함ियो. 二, 이억 만리 바깥(二億 萬里 外)의 대 성계(大 星界)를 논함도 그 심리에서 일어남이다. 2. 아래로는 지옥까지 만나니 -, 지부(地府)의 10 大王[불교에서 언급하는 저승 세계의 10왕-연구자 주]을 논함도 다만 마음 가운데서 일어남. 3. 넓게 퍼면 우주도 용납하지 못함.²⁷

부연하여, 길선주는 기독교에 입교하기 전 오랜 기간 유불선(儒佛仙)에 몸담아 토착종교들의 해박한 지식과 경륜을 쌓았다. 특히 도교에서는 불로장생(不老長生)을 추구하는 선술(仙術)을 익혀 옥경, 구령삼정(九靈三精) 주문, 장량(張良)의 도인법(導引法)과 소강절정좌법(昭康節靜坐法), 신차력(神借力), 수차력(水借力), 약차력(藥借力) 등에 체험적으로 일가견이 있었던 만큼 남달리 인간의 구원과 죽음, 그리고 사후의 세계를 생각하는 종교심이 깊었다.²⁸ 그는 대한제국 말 부정부패가 심화되던 혼란기에 영생불사를 고민하며 여러 종교들을 섭렵하던 중 인생 종말에 관한 진정한 가르침을 기독교에서 발견했다. 기독교 교역자들이 가르친 내세와 영생의 주제는 그가 기독교만을 참 종교로 각인하는 절대적 동인이 되었으며 유불선 삼교(三敎)를 떠나서 기독교에 귀의하게 된 궁극적인 사유이기도 했다. 그는 유불선은 사후세계를 깊이 논하지 않기에 진정한 종교가 될 수 없다고 확언했고 오직 사후의 영생을 진지하게 논하는 기독교만이 참 종교라고 고백했다.²⁹ 그가 회심하기 전 친구 김종섭으로부터 청교도 학자 번언(John Bunyan)의 저작 『천로역정(턴로력명)』(*The Pilgrim's Progress*)³⁰을

27 길선주, 『강대보감』, 7. 설교제목: “단심만능(丹心萬能)”.

28 김인서, “영계 선생 소전(상),” 『신학지남』 제13권 6호 (1931. 11), 39.

29 길선주, 『강대보감』, 187. 설교제목: “영생”.

전해 받고 ‘기독교도(基督徒)의 신앙경험의 과정’에 큰 감동을 받아 눈물로 책장을 적시며 탐독했던 것도 지상 순례자로서의 삶을 거쳐 영원한 내세에 이르고자 하는 종교심이 심오했기 때문이었다.³¹ 그는 이 청교도 고전을 한국의 시대적 상황에 맞도록 내용을 독창적으로 각색하고 토착화하여 1904년에 『해타론(懈惰論)』³²을, 1916년에는 증보판 양태의 『만사성취(만스성취)』를 출간했다. 그는 『만사성취』 종반부에서 “옛날 성현 군자들과 모든 성도들이며 천천만만 천사들이 다 머리에 금 면류관을 쓰고 손에 금 거문고를 잡고 구름같이 시위하여 하나님의 크신 권능과 구주 예수의 지극히 인애하신 공덕을 찬송하며 영원한 쾌락성가(快樂聖歌)를 노래하니 참 영생세계요 극락강산(極樂江山)이로다.”³³라고 찬미하여 천국을 사모하는 열정을 지폈다.

III. 구원과 자유의지의 상관성

보편적으로 개혁주의신학에서 칭의라는 용어를 구사할 때면 수동적 칭의(passive justification)를 정설로 지지한다. 수동적 칭의란, 죄인은 결코 자신의 능력에 의해 능동적으로 의를 추구할 수 없는 존재이며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혜로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하심으로써 죄인이 수동적 의를 얻는다는 개념이다.³⁴ 루터(Martin Luther)가 이 칭의사상과 관련하여 95개조 논제를 비텐베르크 성당에 부착한 이듬해 1518년 봄에 탐 체험을 통하여 대오각성(大悟覺醒)한 것도 바로 수동적 의(passive righteousness)였으며³⁵ 이 칭의관은 이후 루터와 멜란히톤(Philipp Melanchthon)에 의해 법정적 칭의(forensic justification) 사상으로 결실했다.³⁶ 이 점을 염두에 두어 본 장에서는 구원과

30 John Bunyan, 『천로역정』, Mr. and Mrs James S. Gale 역 (京城: 삼문출판사, 1895).

31 김인서, “영계 선생 소전(상),” 40.

32 길선주, 『해타론(懈惰論)』 (경성: 대한성교사회, 1904), 1-17.

33 길선주, 『만사성취』 (평양: 광문사, 1916), 49-50.

34 박재은, “능동적 칭의(Active Justification) 개념의 신학적 중요성과 필요성 고찰,” 『갱신과 부흥』 제22호 (2018), 122.

35 안수강, “루터의 95개조 논제와 칭의사상(稱義思想),” 『역사신학논총』 제20집 (2010), 40-44.

자유지의의 상관성을 논제로 길선주의 칭의론과 그의 창세기 15장 6절에 대한 이해를 분석하여 자유지의론과 신인협동설에 입각한 구원관을 살펴보고자 한다.

1. 길선주의 칭의론 이해

(1) 길선주의 칭의론

길선주의 설교문 “은혜요리(恩惠要理)”에 의하면 은혜는 일체 인간의 행위나 공로와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수여하시는 하향적(下向的) 선물이라고 했다. 은혜를 받는 방법에 대해서는 죄를 인식할 것, 겸손을 추구할 것, 하나님을 사랑할 것, 기도할 것, 찬송할 것, 부부간 화합할 것, 은혜를 사모할 것, 합심기도에 힘쓸 것 등을 논했으며 은혜를 수여하는 주체를 분명하게 하나님이라고 명시했다. 또 다른 설교문 “신(信)의 요리(要理)”에서는 에베소서 2장 8절(“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을 인용하여 믿음의 근본 출처는 하나님이며 믿음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선물’³⁷이라고 했다. 아래에 소개한 인용문은 그의 설교문 “은혜요리(恩惠要理)”에서 발췌한 것이다. 길선주는 은혜를 논증함에 있어 하나님으로부터 발원하여 인간에게 이르는 하향성을 강조했고 하나님의 능동적인 구원 행위와 하나님께 의존하는 인간의 수동적인 위치를 대조하여 조명했다.

은혜요리(恩惠要理). 一, 은혜가 如何한[어떠한-연구자 주] 것이나. 1. 행함이 없이 얻는 것(롬 4:4-6; 11:6). 2. 공(功)이 없이 얻는 것(롬 3:24). 3. 하나님의 선물(엡 2:8). (중략) 五, 은혜를 받을 방법이 무엇인가?
1. 죄를 각(覺)할 것(롬 5:20). 2. 겸손할 것(약 4:6; 뱀전 5:15). 3. 하나님을 애(愛)할 것(출 20:6). 4. 간구할 것(7:46; 삼상 1:1; 12-18). 5. 찬송할

36 Cf. Alister E. McGrath, *Reformation Thought* (Oxford: Basil Blackwell Inc., 1989), 73-74, 83-84.

37 최인화 편, 『길선주 목사 설교집』 (경성: 주교출판사, 1941), 116. 설교제목: “신(信)의 요리(要理)”.

것(골 3:16). 6. 부부가 화합할 것(벧전 3:6-7; 엡 5:23; 고전 7:33-34).
7. 대은(大恩)을 사모할 것(고전 12:31). 8. 중인(衆人)이 합심하여 기도할
것(고후 1:11). 9. 주를 애(愛)하는 마음을 변치 말 것(엡 6:24).³⁸

또한 그는 하나님의 전능성에 견주어 죄를 범한 인간은 의를 수행할 능력이 없는 ‘불능(不能) 무력자(無力者)’이자 영적 능력을 상실하여 결코 죄를 극복할 힘이 없는 무능한 존재라고 했다. 이는 칼빈이 논한 아담 타락 이후의 부패한 인간상과도 일치한다. 칼빈은 『기독교강요』(*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제1권 초두에서 “타락한 인간을 영적 능력을 상실해 버린 무능한 존재로, 그리고 무지, 허망, 궁핍, 무력함, 타락, 부패 등”³⁹ 최악의 진원지로 규정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압도당하여 전율할 수밖에 없는 일천한 존재에 불과하다고 했다. 길선주는 인간의 무능성에 비추어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는 ‘절대 능력’이자 ‘무소불능(無所不能)’이라고 고백했다. 이 능력은 단지 상대적 능력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omni’(全)의 의미를 갖는 ‘절대적 전능’(absolute omnipotence)이다.

이 시대는 능력의 시대라고 자랑한다. 능히 산을 파서 강으로 옮기며 능히 장전운물[掌電運物, 전력에 의한 운송-연구자 주]하며 능히 借風飛行[바람을 빌어 비행함-연구자 주]함이 능력이 아닌 바 아니다. 그러나 우주 자연력에 비하면 一微塵[일미진, 미세먼지-연구자 주]을 거(擧)함에 불과하거늘 어찌 하나님의 절대능력에 비할 바이리오. 그뿐 아니라 범죄한 인간이기에 영능(靈能)을 잃어버려 죄를 이길 힘이 없고 의를 행할 힘은 전무한 불능 무력자일 뿐이요 하나님만이 무소불능(無所不能)한 이시니⁴⁰

길선주는 이런 무능력한 인간이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믿음에 의해서라는 ‘유신’(唯信)의 의미를 천명했다. 아래 인용문들에 기술되었듯이 그가 ‘보패(寶貝)로운 믿음의 공효(功效)’를 구원으로 본 점이나 ‘믿음은 구원 얻는 영혼의

38 최인화 편, 『길선주 목사 설교집』, 113-115. 설교제목: “은혜요리(恩惠要理)”.

39 John Calvi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I. 1. 1(35-37면); I. 1. 3(38-39면).

40 최인화 편, 『길선주 목사 설교집』, 118-119. 설교제목: “하나님의 만능”.

손'이라는 수사(修辭)적 비유, '영생을 얻을 자, 예수를 믿는 자', '믿음으로 의인된 우리'라는 표현들은 오직 믿음에 의해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는 전형적인 칭의교리를 보여준다.

보배로운 믿음의 공효(功效) 1. 보호함을 받고(벧전 1:5). 2. 구원을 얻고. 영혼이(벧전 1:9), 육신이(벧전 1:5) 3. 상을 받는다(칭찬, 영광, 존귀).⁴¹

독실하게 믿음으로 믿음은 구원 얻는 영혼의 손이나라. 엡 2:8- 四, 간구함으로 하나님의 귀는 간구의 소리를 잘 들으시느니라(마 7:7-8).⁴²

영생 얻을 자 1. 예수를 믿는 자(요 11:25; 14:6). 2. 주의 말씀을 듣는 자(요 5:24). 3. 주를 위해 세정(世情)을 떠난 자(눅 18:29-30). 四. 영생할 곳 1. 무궁세계. 2. 천당 새 예루살렘.⁴³

아브라함이 소동성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의인 10인이 있으면 용서해달라고 하였고 의인의 기도는 운동력이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율법을 지킴으로써 의인된 자가 없느니라. 누구를 믿음으로 의인이 될까. 예수를. (중략) 믿음으로 의인된 우리는 즐겁지 아니하라.⁴⁴

지금까지 고찰한 길선주의 칭의관에 입각하여 조망하면 그의 칭의사상은 외견상으로는 개혁주의신학 체계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의 칭의사상은 논리적으로 자유의지에 의한 믿음의 산물이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이 사안과 관련하여 그의 칭의사상이 하나님의 절대주권의 범주 안에 있는지 아니면 신인협동설을 표방하는지에 대한 첨예한 논쟁이 있다. 다음 제2항 '길선주의 칭의론 해석: 정성구와 길진경의 상반된 논지'와 제2절 '길선주의 창세기 15장 6절 이해 분석'에서 이 사안에 초점을 맞추어 고찰하고자 한다.

41 길선주, 『강대보감』, 103. 설교제목: “보배(寶貝)로운 믿음”.

42 길선주, 『강대보감』, 163. 설교제목: “십자가상에 구원 얻은 강도”.

43 길선주, 『강대보감』, 186. 설교제목: “영생”.

44 길선주, 『강대보감』, 219. 설교제목: “믿음으로 된 의인”.

(2) 길선주의 칭의론 해석: 정성구와 길진경의 상반된 논지

길선주의 자유의지론과 관련하여 정성구와 길선주의 자제 길진경의 상반된 해석에 주목해야 한다. 본 항에 소개할 길선주의 칭의론에 대한 정성구와 길진경의 배치된 논지는 그의 구원관을 진지하게 살펴볼 수 있는 이론적 배경을 제시해 준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다. 정성구는 “한국교회와 설교운동-길선주, 김익두, 이성봉을 중심으로-”(1984)에서 이 사안을 비교적 깊이 있게 논증했다. 그는 전항(前項) ‘길선주의 칭의론’에 소개된 “이 시대는 능력시대라고 자랑한다(이하 생략)”라는 동일한 문장을 분석하여 자신의 견해를 개진했다. 그는 인간의 전적 타락과 무능을 하나님의 전능, 무소불능, 만물을 통어(統御)하는 능력, 영능, 독능, 무소불능 등의 고유한 신성과 대조하면서 길선주는 철저히 이 교리를 견지했기에 구원에 관하여 의심할 여지없이 신본주의 신앙을 천명했다고 단정 지었다.

그는 여기선[설교제목: “하나님의 만능”-연구자 주]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불능(無所不能)하신 하나님, 만물을 통어(統御)하신 하나님, 만사에 능하신 하나님이며 영능(靈能)하신 하나님이요 독능(獨能)하신 하나님으로 설교했다. 그는 전능하신, 무소불능하신 하나님을 제시하면서도 이에 반해서 인간의 전적타락과 무능(total depravity)을 설명하고 있다. 그의 신앙은 바로 신본주의 신앙이라고 할 수 있다. 하나님 한 분을 바로 앞으로 모든 문제의 해결을 얻고자 한다. 하나님은 전능자이시므로 그 안에서만 만사형통 한다는 것이다.⁴⁵

반면 길선주의 자제 길진경은 『영계 길선주』(1980)에서 인간구원과 관련하여 선친의 자유의지관을 뚜렷하게 부각시켜 정성구와 견해를 달리했다. 그는 길선주의 신학적 소양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예지와 예정, 부르심과 선택’이라는 제하에 ‘누구나 저를 믿으면’이라는 문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인간 측의

45 정성구, “한국교회와 설교운동-길선주, 김익두, 이성봉을 중심으로-,” 『신학지남』 제51권 1:2집 (1984년 봄-여름), 152.

회답을 의미하며 이는 인간이 소명에 응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단서를 함축한다고 해석했다. 그는 이를 논거로 선친이 예지예정(foreknowledge predestination), 그리고 하나님의 선행적 은총과 인간의 응답이라는 차원에서 신인협동적 구원관에 입각해 있었다고 보았다.

예지와 예정은 하늘에서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계획의 일환으로서 결정된 그의 뜻의 표현이다. 예지와 예정은 사람이 행동하기 전[자유지의로 구원을 수용할 것인지의 여부-연구자 주]에 하나님이 알고 계셨고, 구원의 여부를 정하셨다는 것이다. (중략) “누구나 저를 믿으면”이라는 말은 일반적이면서도 부름에 응하지 않을 수도 있는 전제의 뜻이 내포되어 있는 것이다. 하나님은 전 인류에게 기회를 주셨다. 이는 일반적이면서 공개적이고 또 개인적인 것이기도 한 것이다. 거기에는 “믿으면”이라는 조건이 따른다. “믿으면”이라는 것은 부르심에 회답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부르심에 회답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⁴⁶

이처럼 정성구와 길진경이 이해한 길선주의 자유지의관은 극명하게 엇갈리는 양상을 보여준다. 다만 길진경은 길선주의 원자료를 분석하지 않고 평소 선친이 논했던 사상을 통해 자신이 경험하고 이해한대로 신인협동적 구원관에 입각해 있었다고 진술함으로써 유작의 원문을 논리적으로 분석하여 제시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있다. 그렇다면 정성구와 길진경의 견해 중 어느 논지에 타당성이 있는가? 다음 2절, ‘길선주의 창세기 15장 6절 이해 분석’을 통해 이 문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2. 길선주의 ‘창세기 15장 6절 이해’ 분석

길선주의 자유의지에 관한 논점은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앞서 살펴본 은혜의 개념이나 칭의사상, 하나님의 전능, 무소불능, 만물을 통어하는 능력, 영능, 독능, 무소불능 등의 속성, 그리고 정성구의 논의 등을 염두에 둔다면 길선주의

46 길진경, 『영계 길선주』 (서울: 종로서적, 1980), 143.

논지는 속죄의 은총과 관련하여 언뜻 인간의 자유의지를 완전하게 배제하는 것으로 비쳐질 수도 있다. 그러나 본 연구자는 아래에 기술한 다섯 가지 사유에 근거하여 길선주의 칭의사상은 길진경이 판단했던 것처럼 자유의지가 개입된 칭의관으로 판단한다. 길선주는 “말세학(13)”에서 창세기 15장 6절(“아브람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에 기록된 아브라함의 칭의에 대해 귀중한 단서들을 남겼다.

첫째, 길선주는 창세기 15장 6절에 기술된 아브라함의 칭의에 대해 자유의지를 전제하여 해석했다. 아래 인용문에서 그는 원죄를 범하기 전 인간은 ‘자유 의능(能)’과 ‘자유 의권(權)’을 가졌다는 소신을 밝혔다. 그런데 문제는, 그가 아담이 타락하기 이전에 부여받았던 자유의지와 아담의 후손인 아브라함의 자유의지를 동일시했다는 데 있다. 그는 후대의 아브라함 역시 범죄 이전에 아담이 가졌던 그 동일한 자유의지로써 하나님을 믿고 따랐다고 해석했다. 이 인용문 후반부에서는 ‘이 자유’, 즉 아브라함이 가진 자유의지를 원죄 이전의 아담과 무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자유의지와 병립하여 견주었다.

최후로 죄인을 심판하실 때에 무저갱(無底坑)에 가두었던 마귀를 천년세계에 잠간 석방할 것이니 천년세계에서 출생한 자[비부활체 신자들의 자녀들-연구자 주]가 시험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시조-연구자 주]을 창조하실 때에 자유의 능(能)과 자유의 권(權)을 주셨대[아담 타락 이전 자유의지-연구자 주]. 하나님께서는 자유의지로 경배하고 순종하는 자를 기뻐하시나니 신앙으로 의롭다 함을 얻은 아브라함[창 15:6-연구자 주]이 신앙 자(者)의 모범이 된 것도 자유의지로 신종(信從)한 때문이다. 그런데 이 자유[아브라함이 가진 자유의지-연구자 주]에는 시험이 없지 못한 것이니 첫 아담도 시험을 받았고(창 2:16-17) 둘째 아담 예수도 시험을 받으셨다(마 4:1-11).⁴⁷

둘째, 위의 인용문에는 가취생산(嫁娶生産) 활동으로 ‘천년세계에서 출생한 자’,⁴⁸ 즉 천년왕국 시기에 태어난 비부활체의 자녀들이 언급되었는데 천년왕국

47 길선주, “말세학(13),” 13.

48 길선주에 의하면 공중재림 시 혼인연석에 참여했다가 그리스도와 더불어 지상에 내려온 부활체 신자들과 대환난기간 중 순교한 신자들은 부활체로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 있지만 환난기간 중

후반에 마귀가 잠시 농임을 받는 때에 이들이 자유지론으로 하나님을 믿고 따를 것이라는 내용이 기술되어 있다. 반면 최후의 심판이 단행되는 시기에 시험을 이기지 못한 자는 유향불 연못에 던져질 것이라고 부언했다. 그가 말하는 '시험'이란 이미 인간의 자유지론을 전제한 표현이다. “천년세계에서 마귀를 잠깐 놓아줄 때에 마귀의 시험을 이기지 못하여 산 그대로 유향불에 들어가는 심판을 받을 것이요(계 19:20).”⁴⁹

셋째, 길선주는 창세기 15장 6절을 바울 서신 로마서 4장 3절(“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며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바 되었느니라”)과 갈라디아서 3장 6절(“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며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에서도 탐독하여 숙지했을 것이라는 점이다. 바울은 로마서 4장 3절과 갈라디아서 3장 6절에서 칭의교리를 설명할 때 창세기 15장 6절을 인용하여 제시했다. 길진경에 의하면 길선주는 로마서는 50회 쯤 통독하여 중요한 구절들은 대부분 암송하고 있던 터였다.⁵⁰

넷째, 이 인용문이 있는 길선주의 글 “말세학(13)”은 1936년 10월에 「신앙생활」에 게재되었다. 도합 14장으로 편성된 『말세학』은 그가 소천(1935년 11월 26일)하기 불과 두 주 전쯤까지도 친히 손질해가며 김인서의 「신앙생활」에 연재하기 위해 탈고에 심혈을 기울였던 역작이었다. 따라서 그가 심중에 새긴 자유지론은 임종 즈음까지도 자신의 확고부동한 사상으로 뿌리내렸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

말세학 수고(修稿)를 위하여 내[김인서-연구자 주]를 부르심으로 11월 12일 [소천은 11월 26일-연구자 주] 내가 병석에 모셨을 때는 매우 쾌차하여 말세학 후반부에 대한 전적(全的) 설명을 하였고 금년 내에 전부 신앙지[김인서 주필의 「신앙생활」-연구자 주]에 연재하기를 명하고 연재를 마친 뒤에 곧 출판할 뜻을 말씀하셨다.⁵¹

순교하지 않고 피 환난처에서 양육 받으며 숨은 교인으로 지낸 비부활체의 신자들은 천년왕국에서 자녀를 출산하는 등 가귀생산에 종사한다. 길선주, “말세학(11),” 「신앙생활」 제5권 7호 (1936. 7), 13, 15; 길선주, “말세학(12),” 「신앙생활」 제5권 8호 (1936. 8), 11-12.

49 길선주, “말세학(13),” 14.

50 길진경, 『영계 길선주』, 123.

다섯째, 길선주는 자유의지가 모든 인간에게 부여되어야 할 필연적 당위성을 논했다. 그에 의하면 본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부여받은 인격체로서 타락 이전이나 이후를 막론하고 기계적 피조물 상을 넘어서서 자발적 의지로 노력을 경주해야 할 본연의 책무가 있다고 했다. 그는 ‘첫 인간 아담’과 ‘오늘날 우리’를 수평적으로 견주어 모든 인간은 자유의지를 선용하여 향상, 발전, 그리고 완전을 추구해나가야 한다고 했다. 따라서 그의 논지에 따르면 자유의지는 시조 아담뿐 아니라 그의 모든 후손도 반드시 갖추어야 할 필수 요건이 된다. 다음 인용문은 그가 출옥한 후 전국 순회부흥회 때 전한 설교문 “선악과(善惡果) 시험에 대하여”에서 발췌한 내용이다.

자유를 인간에게 주시기 위함이다. 하나님은 죄를 짓지 않는 인간을 만들려면 만드실 수 있으셨을 것이다. 그러나 복종을 시켜 복종하는 인간이라면 기계적 이요 무가치한 인간이다. 시계가 일정한 시간을 맞추는 것은 맞추도록 자음이요 닻이 새벽시간을 맞추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으신 까닭이다. 보라 기계적 창조물은 향상도 발전도 없다. (중략) 인간에게는 자유[자유 의지-연구자 주]가 있기에 향상도 있고 발전도 있다. 기계적 복종은 복종이 아니다. (중략) 아담은 실패했으나 그 시험이 있었던 까닭으로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을 복종함으로써[자유 의지로 복종함으로써-연구자 주] 더 향상할 수 있으며 완전하게 될 수가 있다.⁵²

이렇듯 길선주는 아담의 범죄 이전뿐만 아니라 이후에도 인간이 갖는 자유의지에 대해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인식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주권을 가진 분이시지만 인간으로 하여금 더 향상되고 발전하는 인간상, 완전한 인간상을 구현할 수 있도록 자유의지를 부여하셨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이로 미루어 길선주의 자유의지론은 루터의 노예의지론(the Bondage of the Will)⁵³이나 칼빈

51 김인서, “영계 선생의 임종과 장의(葬儀),” 『신앙생활』 제5권 1호 (1936. 1), 35.

52 최인화 편, 『길선주 목사 설교집』, 67-68. 설교제목: “선악과(善惡果) 시험에 대하여”. 출옥한 후 순회부흥회 설교. 길진경, 『영계 길선주』, 332.

53 Martin Luther, “On the Bondage of the Will,” trans. & ed. E. Gordon Rupp, *Luther*

의 종속된 자유지론⁵⁴ 개념과는 교섭될 수 없다. 일면 그의 자유지론은 종교개혁 시기 인문학자 에라스무스(Desiderius Erasmus)가 『의지의 자유에 관하여』(*On the Freedom of the Will*)에서 진술했던 논지와 상당부분 상통하는 것으로 보인다. 에라스무스는 자유지 논증에서 원죄 이후 인간이 거부하거나 선택하려는 의지는 자신의 길을 교정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게 약화되었지만 죄 용서를 받게 되면 하나님의 은총을 통해 다시금 선택의 자유를 회복한다고 주장했다.⁵⁵ 그리고 자유지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선물이기에 그리스도인은 이 의지를 선용하여 모든 선행의 공적을 하나님의 것으로 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⁵⁶

IV. 선택과 자유지, 그리고 심판과 자유지의 상관성

본 장에서는 길선주의 자유지론과 관련하여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심판의 관점에 역점을 두어 '선택과 자유지의 상관성' 및 '심판과 자유지의 상관성'을 중심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그가 논한 선택과 자유지의 상관성에는 아르미니우스(Jacobus Arminius)의 관점이, 심판과 자유지의 상관성에는 하나님의 전능성과 심판, 인간의 자유지와 심판이라는 관점이 부각되어 있다.

1. 선택과 자유지의 상관성

길선주는 설교문 “우리를 택하신 목적”에서 인간 구원을 위한 선택의 개념을 두 범주에서 관찰했다. 먼저 하나님 측에서 구원 받을 개개인을 선택하셨다는 개인적 선택의 개념이 분명하게 나타난다.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인간

and Erasmus: Free Will and Salvation (Philadelphia, Pennsylvania: The Westminster Press, n.d.) 140.

⁵⁴ John Calvi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II. 4. 8(316면).

⁵⁵ Desiderius Erasmus, “On the Freedom of the Will,” trans. & ed. E. Gordon Rupp, *Luther and Erasmus: Free Will and Salvation*, 48.

⁵⁶ Desiderius Erasmus, “On the Freedom of the Will,” 84-85.

개개인에 대한 선택과 아울러 민족공동체를 선택하는 하나님의 섭리까지 확장하여 살폈다. 참고로, 칼빈은 선택의 범주를 논할 때 개인과 공동체라는 이중적 지평⁵⁷을 적용했는데 길선주의 논점과도 일치한다. 길선주는 개인 선택의 사례들로서 노아, 아브라함, 요셉, 모세, 여호수아 등을 들었고 공동체적 선택 사례들로는 이스라엘 민족과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을 제시했다.

하나님이 노아를 택하심은 인류의 시조를 삼고자 함이요 아브라함을 택한 것은 만민에게 복된 허락을 주시고자 함이요 요셉을 택한 것은 이스라엘 십이 형제를 주시고자 함이요 모세를 택한 것은 율법을 주시고자 함이요 여호수아를 택한 것은 선민(공동체 개념-연구자 주)을 가난한 복지에 인도하고자 하심이니 주께서 우리[오늘날 신자들 공동체 개념-연구자 주]를 택하신 목적은 무엇일까. 一, 열매를 맺게 하려고. (중략) 二, 구하는 대로 주시려고. (중략) 三, 서로 사랑하게 하려고. 1. 예수의 명하신대로. 2. 예수의 끼친 본(本)대로.⁵⁸

길선주는 하나님께 헌신해야 할 정당한 사유로 택함을 입었기 때문이라고 했으며 그리스도의 사신(使臣)으로 부르심과 파송을 받아 구령 사역을 담당해야 할 피택(被擇, 선택을 받음)된 사역자라고 했다. 또한 '자비하심을 받은 자'(기존 신자)와 '받을 자'(추후 믿을 자)를 '택함 받은 형제자매'라고 통칭했으며⁵⁹ 이 피택은 하나님의 자비에 근거한다고 했다. 이렇듯 길선주는 적극적으로 선택교리를 옹호하여 피력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중략) 헌신해야 할 이유. 1. 나는 나의 것이 아니므로(고전 6:19-20). 2. 구원을 얻음으로(엡 2:8). 3. 택함을 입었으므로(딤후 2:8).⁶⁰

57 John Calvi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III. 21. 5-6.(926-930면).

58 최인화 편, 『길선주 목사 설교집』, 131-132. 설교제목: “우리를 택하신 목적”.

59 길선주, 『강대보감』, 69. 설교제목: “무궁한 자비”.

60 최인화 편, 『길선주 목사 설교집』, 130. 설교제목: “하나님께 헌신하라”.

二, 사신(使臣) 신자 1. 부르심을 받음. 2. 피택(被擇). 3. 보내심을 받음.
 四, 보내신 이유 1. 전도(마 28:18; 딤후 4:2). 2. 구인(救人)(롬 12:8;
 막 16:16).⁶¹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낙관(樂觀)의 세계가 죄로 인하여 비관의 세계로 변하였
 나니[아담의 범죄 결과-연구자 주] 우리가 만일 하나님의 자비를 입지 못한다
 면 살 길이 없느니라. (중략) 자비하심을 받은 자와 받은 자 1. 환란 받는
 우리. 2. 택함 받은 형제자매.⁶²

그렇다면 그에 있어서 하나님 측의 선택과 인간 측의 자유의지는 어떻게 상호 조화를 이룰 수 있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전술한 것처럼 “예지와 예정은 하늘에서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계획의 일환으로서 결정된 그의 뜻의 표현이다. 예지와 예정은 사람이 행동하기 전에 하나님이 알고 계셨고, 구원의 여부를 정하셨다는 것이다.”⁶³라고 밝힌 길진경의 논지와 본 연구자가 ‘길선주의 창세기 15장 6절 이해 분석’에서 논증한 다섯 항목들을 반영하면 자연스럽게 아르미니우스 노선의 예지예정, 그리고 선행적 은혜와 이에 대한 응답의 차원을 함축한 신인협동적 구원관으로 귀결된다. 길선주는 선택과 관련하여 인간의 자유의지가 개입된, 이른바 인간의 예견된 신앙(foreseen faith)에 근거한다는 아르미니우스주의(Arminianism)⁶⁴의 예지예정론을 수용했다. 그가 위의 마지막 인용문에서 “낙관의 세계가 죄로 인하여 비관의 세계로 변하였나니우리가 만일 하나님의 자비를 입지 못하면 살 길이 없느니라.”라고 고백한 것은 하나님께서 예지에 의해 선행적 은총(자비)을 베푸신다는 조건적 단서가 전제된 표현이며, 인간은 자유의지를 선용하여 선행적 은총에 능동적으로 응답해야 한다는 신인협동의 취지가 내재되어 있다.

2. 심판과 자유의지의 상관성

61 길선주, 『강대보감』, 44. 설교제목: “그리스도의 사신(使臣)”.

62 길선주, 『강대보감』, 69. 설교제목: “무궁한 자비”.

63 길진경, 『영계 길선주』, 143.

64 Louis Berkhof, *Systematic Theology*, 115.

길선주가 논하는 심판의 개념은 그 대상에 있어 제한적으로 '선민 이스라엘을 징계'하는 대목도 포함된다. 물론 이 때의 심판은 징계의 차원이며 그 의도는 멸망이 아닌 회복에 있다. 그의 심판론은 전반적으로 선민을 대적하는 사탄의 세력,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만한 인간들, 구원의 은총을 거절하는 인간들을 대상으로 논증이 전개되었다.⁶⁵

(1) 하나님의 전능성과 심판

길선주는 하나님의 능력을 총체적으로 '만능'(萬能)이라고 표현했다. 그의 논지에 따르면 하나님의 능력은 현세에서의 심판을 포함하여 최후의 심판을 집행하는 유일무이한 능력으로 착근되어 있다는 점에서 전능성과 심판 양자간의 인과관계 도식이 도출된다. 설교문 "하나님의 만능(萬能)"에는 하나님의 능력과 관련하여 '전능', '무소불능'(無所不能), '영능'(永能), '독능'(獨能) 등 독특한 표현들이 다양하게 기술되었는데 심판의 유형에 따라 적합한 용어들을 선별하여 적용했다. 이는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는 결코 어떤 유형의 심판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첫째, 길선주가 언급하는 '전능'은 '심능'(心能), '언능'(言能), '행능'(行能) 등 세 영역에 관련된다. 심능은 우주삼라만상의 기원을 주재하는 능력에, 언능은 만물 창조하고 사람의 마음을 찢러 해부하며 세상을 심판하는 능력에, 그리고 행능은 섭리 과정에서 사람의 마음을 주관하고 우주에 충만하게 작용하는 능력에 적용된다.

- 전능. 一, 심능(心能). 만물이 하나님의 의장(意匠) 중에서 나옴(창세기 1장)
 二, 언능(言能) 1. 언능-만물 창조(히 11:2). 2. 언능-인심 자부(刺割)[찌르고
 쪼갬-연구자 주](히 4:12). 3. 언능-세상 심판(히 3:4). 三, 행능(行能)
 1. 인심 중에 미행(微行)(빌 2:13). 2. 우주에 충만 대행(大行)(엡 1:22).⁶⁶

65 하나님의 심판이 '선민'과 '이방인들'에게 어떻게 적용되는 지에 대한 논증은 다음 논문을 참고할 것. 최윤갑,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보응적 정의, 또는 회복적 정의를 이루는가?," 『갱신과 부흥』 제32호 (2023), 17-31.

둘째, 하나님의 '무소불능'은 어느 곳에서든지 선민을 대적하는 사탄의 세력에 대한 심판뿐 아니라 지상에 현존하는 현세적 적대세력들에 대한 심판까지도 일괄한다. 특히 무소불능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선민을 보호하시기 위한 능동적인 취지를 담았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길선주는 그 대표적인 사례들로서 블레셋 전투에 출전한 사무엘, 이스라엘 민족의 홍해 도하, 히스기야 당시 산헤립 침략군의 전멸, 풀무 불에 던져진 다니엘의 세 친구 구출, 바닷물에 빠진 베드로를 구하신 일, 무덤 속의 나사로를 살리신 일 등을 제시했다.

무소불능(無所不能). 一, 사람과 마귀를 능히 주장(主掌)함. 1. 사람을 능히 구원하거나 능히 벌함. 2. 마귀를 놓기도 하고 멸하기도 함. 二, 만물을 능히 통어(統御)[거느려 제어함-연구자 주]함. (중략) 5. 풍우뇌전(風雨雷電)을 능산능취(能散能聚)[능히 흩거나 모음-연구자 주] 함. (중략) ㄷ. 사무엘이 블레셋과 싸울 때 뇌전으로 적을 침. 三, 만사에 능함. ㄱ. 애굽 군대를 홍해에 던짐. ㄴ. 성성(聖城) 외에 18만 5천 명의 앗수르 군대 몰살. 2. 선민(選民)을 보호함. ㄱ. 다니엘의 세 친구를 홍로(紅爐)[벌겋게 달군 화로-연구자 주] 중에서 보호함. ㄴ. 베드로를 해중(海中)에서 구출함. ㄷ. 나사로를 무덤에서 살림. ㄹ. 죄 중에서 구출함. ㅁ. 고난 중에서 보호함.⁶⁷

셋째, '독능'은 창세 이후 인류역사가 오메가를 향해 진행되는 과정에서 사탄과 마귀들 그리고 그 수하에 속한 적대 세력들을 대상으로 심판을 집행하시는 능력에 적용된다. 길선주는 그 대표적인 사례들로서 하나님을 배신한 사탄의 징벌, 인간의 교만을 잠재우신 바벨탑 사건, 사탄의 권세를 누르시고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 등을 제시했다.

독능(獨能) 一, 천사가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쫓겨남. 二, 홍수 이후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흩어짐[바벨탑 사건-연구자 주]. 三, 마귀가 하나님을

66 최인화 편, 『길선주 목사 설교집』, 119. 설교제목: "하나님의 만능(萬能)".

67 최인화 편, 『길선주 목사 설교집』, 119-120.

대적하여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으나 십자가로 말미암아 도리어 마귀가 패함. 결과.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의 능력을 얻을 수 있음.⁶⁸

넷째, 길선주는 설교문 “불가사의(不可思議)의 대 주재(大主宰)의 능력”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지혜의 능력’, ‘지식의 능력’, ‘판단의 능력’ 등 세 영역으로 대별했다. 이 3종의 능력들은 선과 악을 분별해야 할 정교한 판단력과 관련되며 재판관들이 필연적으로 갖추어야 할 지고의 역량에 해당된다. 그는, 지혜의 능력은 천사도 측량하지 못할 지혜이자 세상의 지혜를 멸한다는 점, 지식의 능력은 세상 현자들의 지혜를 초월하며 마귀들도 두려워 떠나는 점, 그리고 판단의 능력은 선민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고 이방을 심판하시는 능력이라는 점을 부각시켰다. 물론 징계는 회복을 의도하지만 심판은 멸망에 직결된다. 그는 하나님의 능력은 불가측(不可測)이라 하여 감히 인간이 측량할 수 없으며, 다만 연약한 인간은 그의 능력을 신뢰하고 의지할 뿐이라고 했다.⁶⁹

(2) 인간의 자유의지와 심판

길선주는 하나님께서 집행하시는 다양한 심판의 결과를 두고서 하나님의 행위는 의로우며 그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인간 측에 있다고 피력했다. 그 근거로서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에게 본래적으로 고유한 자유의지를 부여하셨기 때문에 죄에 대한 심판 또한 정당하다는 명분과 당위성을 갖는다는 것이다. 아래 인용문은 그의 설교문 “예수께서 죄인을 찾으심”(계 3:20-“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과 다른 설교문 “모사(謀事)는 재인(在人)이요 성사(成事)는 재천(在天)”에 기술된 일부 내용이다. 그는 하나님께서 비록 인간을 구원하시려는 뜻을 세우셨을지라도 인간 측에서 거절하면 공연(空然)히, 즉 어찌할 도리 없이 되돌아가실 것이며 마침내 천국의 문을 굳게 닫고 배척하실 것이라고 했다. 그는 ‘불원자(不願者) 불성(不成)’이라 하여

68 최인화 편, 『길선주 목사 설교집』, 120-121.

69 길선주, 『강대보감』, 221. 설교제목: “불가사의(不可思議)의 대 주재(大主宰)의 능력”.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시더라도 거절하는 자는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고 단언했다. 그의 이 논증은 결국 전술했던 하나님의 선행적 은혜와 인간 측의 응답이 정교하게 맞물리는 상호 역학구도를 취함으로써 전형적인 신인협동설의 구도를 보여준다.

계 3:20-21 인(引), 주께서 여러 가지로 죄인을 찾으신다. 一, 찾으시는 방법 1. 사람에게 오심. 2. 문 밖에서 기다리심. 3. 문을 두드리심. 二, 죄인이 할 것 1. 예수의 말씀을 들을 것. 2. 문을 열 것. (종략) 결(結), 마음의 문을 열어 예수를 영접하지 아니하면 이후에 천문(天門)을 굳게 닫고 우리를 배척하시리라.⁷⁰

불원자(不願者) 불성(不成)[원치 않는 자는 성공(구원)에 이르지 못함-연구자 주] (1) 여호와와 유대인을 구하고자 하셨으나 불응하므로 폐기하고(사 66:4). (2) 주는 예루살렘을 거두고자 하였으나 원치 아니하므로 황허(荒墟)가 되었다(눅 13:33-34). (3) 주께서 우리 마음에서 기다리시나 열지 않으면 공연(空然)히 돌아가실 것이니라(계 3:20).⁷¹

길선주는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전도와 선교 차원에서 인용했는데 이 구절은 본래 예수 그리스도께서 라오디게아교회 신자들의 미지근한 신앙과 일탈행위를 책망하시는 장면이며 탈선한 기존 신자들에게 회개를 촉구하시는 대목이다. 따라서 전도 혹은 선교가 아닌 회개와 성화에 초점을 두어야 할 구절이다. 청교도 신학자 헨리(Matthew Henry)는 이 구절에 대해 “그들은 그 책망을 듣고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여 그들을 치시고 책망하시는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한다.”⁷²라고 주석했으며, 헨드릭슨(William Hendriksen) 역시 중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문을 열면’이라는 표현은 엄연히 회개를 가리킨다고 했다.⁷³ 이 설교문 “예수께서 죄인을 찾으심”(본문-계 3:20)은 1907년 1월

70 길선주, 『강대보감』, 66. 설교제목: “예수께서 죄인을 찾으심”.

71 길선주, 『강대보감』, 158. 설교제목: “모사(謀事)는 재인(在人)이요 성사(成事)는 재천(在天)”.

72 Matthew Henry, *Acts to Revelation, Matthew Henry's Commentary*, Vol. VI (Old Tappan, New Jersey: Fleming H. Revell Company, n.d.), 1136. 계 3:20 주석.

평양대부흥성회가 개최되기 직전인 1906년 12월 말에 “이상한 귀빈과 괴이한 주인”(계 3:20)이라는 주제로 설교했던 메시지와도 내용이 흡사하다. 그는 이 설교에서 ‘전능하신 손으로 간절히 두드리심이 이상’하며 또한 ‘굳게 닫은 방문을 열지 않음이 괴이’⁷⁴하다 함으로써 하나님 측의 선행적 은혜에 따른 인간 측의 응답, 즉 자유의지의 능동적 선용을 피력했다. 그는 출옥한 이후 1920년대부터 임종하기까지 순회부흥운동을 수행할 때도 이 주제로 설교한 적이 있다.⁷⁵ 이는 그의 자유의지론에 관한 입장이 개종 초기 단계로부터 생애 마지막에 이르기까지 변함없이 일관적이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V. 나가는 말

지금까지 길선주의 설교문들과 말세학 저서들을 중심으로 미시적 관점에서 자유의지론을 분석했다. 본 연구에서는 길선주의 자유의지론 논증에 초점을 맞추어 ‘범죄 후 인간의 죄 문제 및 종교심’, ‘구원과 자유의지의 상관성’, ‘심판과 자유의지의 상관성’ 등을 중심 논제로 설정하여 고찰했다.

첫째, 길선주는 ‘범죄 후 인간의 죄 문제 및 종교심’에 관한 논증에서 행위언약이 파기되기 전 인간상에 대해서는 탁월한 자유의지를 갖춘 존재로 이해했으나 원죄 이후 모든 인간이 타락했다는 입장을 취했다. 교회의 4종인들 중 제1그룹 유형의 죄사함을 받은 ‘초신자’에 초점을 두어 죄를 ‘원죄’와 ‘본죄’로 대별하고 본죄는 ‘전죄(前罪)’, ‘금죄(今罪)’, ‘내죄(來罪)’ 등으로 세분화하여 전통적 개혁주의 죄관을 수용했다. 그는 모든 인간이 사후의 세계를 소망하는 종교심을 가졌다는 점에 주목하여 태생적으로 내세를 열망하는 실존적 존재라고 피력했다. 이를 단초로 신자와 불신자를 막론하고 모든 인간은 지상의 삶에 만족하지

73 William Hendriksen, 『요한계시록 주석』, 김영익, 문영탁 역 (서울: 아가페출판사, 1985), 93. 계 3:20 주석.

74 길선주, 『강대보감』, 1. 설교제목: “이상한 귀빈과 괴이한 주인”. 1906년 성탄절 직후 목요일에 행한 설교. 길진경, 『영계 길선주』, 185.

75 길진경은 출옥 후 순회부흥회 때에도 이 설교를 행했다고 기술했다. 길진경, 『영계 길선주』, 333.

않고 이데아의 세계인 천국과 지옥을 내다볼 정도로 종교심이 광대하다고 했다.

둘째, 길선주는 '구원과 자유의지의 상관성'에서 칭의론 논증에서는 오직 믿음에 의해서라는 '유신'(唯信)의 의미를 천명하지만 그의 칭의사상은 자유의지가 개입된 칭의관이다. 그 근거로서 창세기 15장 6절을 기록된 아브라함의 칭의를 자유의지에 입각하여 해석한 점, 가취생산(嫁娶生産) 활동으로 천년세계에서 출생한 자들이 갖는 자유의지, 창세기 15장 6절을 인용한 로마서 4장 3절과 갈라디아서 3장 6절의 칭의 논증을 간과한 점, 1936년 10월에 「신앙생활」에 게재된 「말세학(13)」에도 일관되게 기술된 자유의지 논점들, 원죄 이후에도 자유의지가 인간에게 필연적으로 부여되어야 할 당위성을 논한 점 등은 자유의지를 하나님의 선물로 본 인문학자 에라스무스의 논증과 상통한다.

셋째, 길선주는 '선택과 자유의지의 관련성 논증'에서는 아르미니우스 노선의 예지예정, 그리고 선행적 은혜와 이에 대한 응답의 차원을 함축한 신인협동적 구원관을 취했다. 그는 이 선택과 관련하여 인간의 예견된 신앙에 의거한다는 아르미니우스주의의 입장을 채택했다. '심판과 자유의지의 관련성 논증'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전능'(심능, 행능, 언능), '무소불능'(천상과 지상의 대적 세력 심판), '독능'(사탄과 마귀의 세력 심판), '불가사의 대주재의 능력'(지혜의 능력, 지식의 능력, 판단의 능력) 등으로 세분화하여 모든 영역에 심판이 집행된다고 했다. 또한 인간의 자유의지와 심판을 인과관계로 엮어 하나님께서 집행하시는 다양한 심판의 결과에 대해 그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인간 측에 있다고 보았으며 그 근거로서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에게 고유한 자유의지를 부여해주셨기 때문에 죄에 대한 심판 또한 정당성을 갖는다고 이해했다.

길선주의 신학사상과 목회사역은 한국장로교에 보수신학의 초석을 놓은 행적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한국 초기기독교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남겼다. 그러나 유의할 점으로서, 해방 전 신학이 충분히 성숙하지 못했고 해방 후에도 일부 그릇된 신학 논점들이 전수되는 현상이 지속됨으로써 현하 개혁주의신학 체계에 혼란스런 점들이 뒤엉켜 상존(常存)한다는 점을 신중하게 성찰해야 한다. 당대 김인서는 그의 신학에 대해 '선생 독특한 신학'이자 '조선 독특한 신학'⁷⁶이라고

76 김인서, "영계 선생 소전(하)," 35; 김인서, "영계 선생의 말세학," 13.

추앙했지만 그의 독창성이 되레 난제를 야기했던 점에 대해서도 필히 주목해야 한다. 길선주의 신학은 본 논문에서 다룬 자유의지 문제뿐만 아니라 이 외에도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에 관한 문제, 시한부 종말론적 재림에 관한 문제(1939년 재림설과 2002년 재림설), 삼계론(새 예루살렘, 무궁안식세계, 지옥), 조상림보 교리, 그리스도의 다섯 차례 강림, 다섯 차례 부활, 상징적 성경해석, 재림과 관련하여 내증과 외증에 관한 문제 등⁷⁷ 다양한 난제들이 혼재되어 있다. 향후 길선주의 신학에 관한 연구는 이런 논점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

77 이 논점들에 대해서는 다음 문헌을 참고할 것. 안수강, 『길선주 목사의 말세론 연구』, 124-136.

[참고문헌]

- Berkhof, Louis. *Systematic Theology*. Grand Rapids, Michigan: W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81.
- Bunyan, John. 『천로역정』. Mr. and Mrs James S. Gale 역. 京城: 삼문출판사, 1895.
- Calvin, Joh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trans. Ford L. Battles. ed. John T. McNeill. Philadelphia, PA: The Westminster Press, 1960.
- Erasmus, Desiderius. "On the Freedom of the Will." trans. & ed. E. Gordon Rupp. *Luther and Erasmus: Free Will and Salvation*. Philadelphia, Pennsylvania: The Westminster Press, n.d., 35-85.
- Gale, James S. "하늘나라에 대한 생각." 유영식 편, 『착한 목자 계일의 삶과 선교(2)』. 서울: 도서출판 진흥, 2013, 475.
- Hendriksen, William. 『요한계시록 주석』. 김영익, 문영탁 역. 서울: 아가페출판사, 1985.
- Henry, Matthew. *Acts to Revelation, Matthew Henry's Commentary*. Vol. VI. Old Tappan, New Jersey: Fleming H. Revell Company, n.d.
- Hoekema, Anthony A. *The Bible and the Future*. Grand Rapids, Michigan: W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89.
- Luther, Martin. "On the Bondage of the Will." trans. & ed. E. Gordon Rupp. *Luther and Erasmus: Free Will and Salvation*. Philadelphia, Pennsylvania: The Westminster Press, n.d., 101-334.
- McGrath, Alister E. *Reformation Thought*. Oxford: Basil Blackwell Inc., 1989.
- Van Til, Cornelius. *The Defence of the Faith*. Phillipsburg, New Jersey: Presbyterian and Reformed Publishing Company, 1967.
- Williamson, Gerald I. *The Westminster Confession of Faith*. Phillipsburg, NJ: P&R Publishing, 2004.
- 근광현. "길선주의 성령운동." 『복음과 실천』 제47권 1호 (2011), 81-107.
- 길선주. 『강대보감』. 평양: 동명서관, 1926.
- _____. 『만사성취』. 평양: 광문사, 1916.

- _____. “말세학(11).” 『신앙생활』 제5권 7호 (1936. 7), 13-15.
- _____. “말세학(12).” 『신앙생활』 제5권 8호 (1936. 8·9), 10-15.
- _____. “말세학(13).” 『신앙생활』 제5권 9호 (1936. 10), 13-14.
- _____. “말세학(예수 재림론).” 『신앙생활』 제4권 8호 (1935. 8·9), 10-17.
- _____. 『해타론(懈惰論)』. 경성: 대한성교서회, 1904.
- 길진경. 『영계 길선주』. 서울: 종로서적, 1980.
- 김인서. “영계 선생 소전(상).” 『신학지남』 제13권 6호 (1931. 11), 37-41.
- _____. “영계 선생의 말세학.” 『신앙생활』 제4권 7호 (1935. 7), 12-13.
- _____. “영계 선생 소전(하).” 『신학지남』 14권 3호 (1932. 5), 33-36.
- _____. “영계 선생의 임종과 장의(葬儀).” 『신앙생활』 제5권 1호 (1936. 1), 35-37.
- 박용규. 『평양대부흥운동』. 서울: 생명의 말씀사, 2000.
- 박재은. “능동적 칭의(Active Justification) 개념의 신학적 중요성과 필요성 고찰.” 『갱신과 부흥』 제22호 (2018), 121-147.
- 박형룡. 『교의신학: 인죄론』. 서울: 한국기독교교육연구원, 1981.
- _____. “사도 생애의 재 연출.” 『신앙생활』 제5권 1호 (1936. 1), 21-25.
- 송진우. “조사(吊辭).” 『신앙생활』 제5권 1호 (1936. 1), 39.
- 안수강. 『길선주 목사의 말세론 연구』. 서울: 예영커뮤니케이션, 2008.
- _____. “루터의 95개조 논제와 칭의사상(稱義思想).” 『역사신학논총』 제20집 (2010), 37-57.
- _____. “버지스(Anthony Burgess)의 『율법변증』(VINDICIAE LEGIS)에 나타난 반율법주의 논쟁 분석: 삼중구조(‘율법-은혜언약’, ‘율법-복음’, ‘율법-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영산신학저널』 제66집 (2023), 203-237.
- 이명직. “영계 선생 길선주 목사 추모함.” 『활천』 제158호 (1936. 1), 3-4.
- 정성구. “한국교회와 설교운동-길선주, 김익두, 이성봉을 중심으로-.” 『신학지남』 제51권 1·2집 (1984년 봄·여름), 140-159.
- 조운호. “아담의 세 가지 직분과 창조론과의 관계.” 『갱신과 부흥』 제24호 (2019), 217-250.
- 최윤갑.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보응적 정의, 또는 회복적 정의를 이루는가?.” 『갱신과 부흥』 제32호 (2023), 7-38.
- 최인화 편. 『길선주 목사 설교집』. 경성: 주교출판사, 1941.
- “사경회 중에 돌연 졸도 길선주 목사 장서(長逝).” 『기독신보』, 1935년 12월 4일.

[Abstract]**Rev. Yeong-gyae Seon-Ju Gil's 'Theory of Free Will' from the Reformed Theological Standpoint**

Su Kang Ahn
(Baekseok University, Adjunct Professor, Historical Theology)

This research aims to explore Rev. Yeong-gyae Seon-Ju Gil's theory of free will from the reformed theological standpoint. I considered the important thoughts and points revealed in his theory of free will as follows. Firstly, in macroscopic approach I analyzed the covenant of works, the innate original sin and the actual sin, the corruption and decline, free will, religious mind of human beings, and so on in his theological system. Secondly, on the basis of Gil's 'demonstration of the correlation between salvation and free will', I focused on the argument on justification, the relationship between free will and justification, the understanding and interpretation of Genesis 15:6, synergism between God and man, and so on. Thirdly, on the basis of Gil's 'demonstration of the correlation between election and free will', I studied foreknowledge predestination, antecedent grace and human response, and so on. Fourthly, on the basis of Gil's 'demonstration of the correlation between judgment and free will', I examined the divine omnipotence and the various types of judgments, the legitimacy of judgment, human responsibility for all sins, and so on. In light of Seon-Ju Gil's theological thought, I suggest future extensions of this discourse into his other various themes such as dispensational premillennialism, the eschatology setting a date

for the end, theory of the three boundaries(New Jerusalem; the world of endless rest; hell), limbus patrum, the five adventures of Christ, the five resurrections of Christ, allegorical interpretation of the Bible, internal and external evidence in relation to the second coming of Christ, and other related areas.

Key Words: Seon-Ju Gil, Free will, Reformed Theology, Salvation, Judgment, Sin